

기괴한 ~ 에이 고딕 서사시

GE 그레이븐 지음



제 11 장



~에서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 버린 시대이며, 단편적인 역사 기록 몇 개만 남아 있을 뿐이다.

천사들의 희미해져 가는 기억 속에서, 한때 엘조는 특별한 종족이 아니었고 햇빛에 쉽게 손상되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 세상이

어렸을 적 그들의 수는 한때 드넓게 펼쳐진 에덴동산의 푸른 들판만큼이나 많았고, 그들은 햇빛에 구애받지 않고 탁 트인 하늘을 누볐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법칙이 모든 계절을 규정하고, 새벽 하늘이 별들의 장막처럼 어두워지듯, 엘조의 한때 찬란했던 나날들도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다.

아아, 역사 속에서 비극적인 사건들이 어김없이 발생하듯, 엘조족 역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모계 혈통 때문이라도, 그들은 어머니인 버려지고 저주받은 천사 루시파엘과 함께 몰락하여 멸망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며, 그러한 사건에 대한 희미한 기록은 외경, 고대 두루마리, 점토 원통에 흩어져 있는데, 이는 지옥 창조 이전의 짧은 시대, 즉 파수꾼 과 그리고 리(네 필름) 가 존재했던 단절되고 독보적인 시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보림, 즉 엘조와 엘리 우드, 그리고 온갖 종류의 거인 과 기괴한 형상의 존재들. 이 고대 시대에 대한 간략하고도 널리 퍼진 기록은 거인들이 한때 지구를 누비던 그 초창기 시절에 대한 집단적인 기억의 극히 일부분만을 드러낼 뿐이다.

태초에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공허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혼돈이라 부르셨다.

그분은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딸들인 천사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그분의 영광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에로스라고 이름 지으셨습니다. 그분의 가장 으뜸이시며 총애하시는 천사들과 함께, 빛, 아폴로와 셋별이시여, 그분은 어둠과 밤과 낮을 나누셨습니다.

그들에게 에레보스, 닉스, 헤메라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네. 그리고 천사 아폴로의 천상 광채 속에서 그분은 낮을 만드셨고, 천사 모닝스타의 지상 광채 속에서는 낮을 만드셨네.

빛을 내시고 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천사 헤르메스를 움직여 소환하게 하셨습니다.

천사 가이아의 투구로 땅을 만드셨고, 그녀의 자궁에서

그는 땅을 향해 천사 우라노스의 방패를 소환하여 덮으셨다.

땅에 생명의 묘약을 뿌리시고, 땅에 씨를 뿌리신 후에,

그는 안팎으로, 우라노스의 물로 검을 소환했다.

천사 아이테르가 물 가운데에 궁창을 드리웠다.

하늘과 바다를 분리하며, 천사 오케아노스와 테티스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시다

물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늘 아래에서 세상의 삼분의 일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산과 계곡은 육지와 바다를 나누고 세계를 뒤덮고 있다.

그분의 천사들로 빚어진 수많은 왕국들, 베스티메데우스.

호미네데우스, 아르테미스, 디오니소스, 데메테르 ~ 식물과 물고기와 새와 짐승과 인간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왕국들; 그의 지상의 정원.

아름답게 지으셨도다. 그분께서 어둠과 빛을, 땅과 바다를 나누셨도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그분은 천사들을 갈라놓으시고 그들 중 삼분의 일을 부르셨습니다.

지구에 내려와 지구의 관리자가 되십시오.

~*~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상 천사들을 축복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삼분의 일이었다.

천상의 천사들이며, 그분은 이 신성한 관리자들을 그리고리라고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파수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아가라고 명하셨다.

사람과 짐승의 세상에까지 이르러 생육하고 번성하라

주님께서는 그분의 창조물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분의 유일한 존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들이 그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라."

창조의 열매이면서, 사람과 짐승 모두에게서 나온 씨앗의 열매이니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고리와 파수꾼들에게 지배권을 주셨다.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였으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

기록된 대로, 짧은 기간 동안 실제로 거인들이 지상에 존재했습니다. 천사들이 감시자라고 부르는 자들과 그들의 직계 티탄 자손, 그리고 그 후손인 기괴한 혈통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인간들 사이를 거닐었고, 인간들은 그들을 기리기 위해 신전과 사원을 세우고 그들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첫날부터 살아남은 어둠의 심연에서, 판도라가 데이먼을 발견하기 훨씬 이전부터, 세 명의 영적이고 비물질적인 데이먼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뿔레야 뿔 수 없는 황폐함의 삼위일체였으며, 그들의 이름에는 신성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운명, 파멸, 그리고 죽음이었습니다. 이 세 데이먼은 마치 헤아릴 수 없이 크고 오염된 안개처럼 에덴동산을 뒤덮었습니다. 마치 세 가지 역병이 합쳐져 하나의 부패 구름을 이룬 듯, 그들은 땅을 휩쓸고 인간과 천사 모두의 마음과 정신을 어둡게 했습니다. 이 삼위일체 데이먼의 존재로 인해 거의 모든 감시자들은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창조물을 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에게서 꾸밈없는 아름다움을 보았듯이, 루시파엘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딸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녀는 그 어두운 안개 속 원시적인 악마들에게 사로잡혀 타락했고, 허영과 정욕으로 달혀 있던 눈이 인간의 적나라한 아름다움에 열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그들 중에서 많은 남편을 택하여 그들과 동침하고 매일 밤 백 명의 타락한 자식을 낳았다.

세상의 파수꾼이었던 지상의 천사들은 주님의 얼굴을 피해 아내와 남편들과 함께 산 아래 숨어들었고, 악행을 비밀로 하고 세상 안팎을 완전히 차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신적인 계약, 즉 천사와 인간 사이의 의도적이고 신성모독적인 혼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초기에 의도하지 않으셨던 강력하고 끔찍한 존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불경스러운 필멸의 존재들이 바로 네 필림과 기보림, 티탄과 키클롭스, 헤카톤케이레스와 고르곤, 용과 와이번, 세이렌과 라미아, 필멸의 서큐버스와 인큐버스, 엘리우드와 엘조, 키메라와 머리가 여러 개인 괴물들입니다.

땅과 바다, 하늘을 누비는 눈을 가진 생물들, 온갖 종류의 불경스러운 혐오스러운 존재들은 결국 역사 속에서 수많은 경이로운 유령으로 전설과 설화 속에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들은 모두 부자연스러운 존재라는 공통점 외에는 서로 달랐으며, 이는 본래의 신성한 세계에 대한 모욕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부자연스러운 혐오스러운 존재들을 통칭하여 데이먼이라고 불렀다. 데이먼 시대 초기에는 수많은 거인들이 있었다. 수치심과 암울함, 그리고 배신의 침묵이 마침내 에덴동산을 뒤덮었고, 이로써 하나님의 창조 의 순수함은 꺼져 버렸다.

세상의 모든 감시자들 중에서도, 특히 한 감시자의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은 단연 돋보인다. 그녀는 천상과 지상의 모든 천사들 중에서 가장 밝게 빛났으며, 하늘과 땅은 빛의 헤일렐, 정원 의 릴리스, 하늘의 셋별 등 수많은 위대한 이름들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교만한 천사였으며, 인간이 자신의 모습을 본뜬 신전이나 제단을 세우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열등한 형상으로 자신의 자만스러운 영광을 훼손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에레보스와 가이아 천사의 불운한 결실인 그녀는 참으로 두 천사의 씨앗이었습니다.

땅과 칠혹 같은 어둠이 그녀의 모습으로 드러나니, 낮의 빛조차 그녀의 앞에서 빛을 잃을 정도였다. 인간은 감히 이 아름다운 지상의 천사의 이름을 속삭일 수밖에 없었다.

인간은 그녀를 '루시파엘'이라 부르며 은밀히, 그리고 꿈속에서 그녀와 함께하기를 갈망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욕망의 불길을 잠재우기 위해 남자들에게 다가갔고, 이 남자들은 그녀의 자식들을 수천, 수만 명이나 낳았다. 이 날개 달린 자식들이 바로 세상을 떠도는 엘조였다. 하늘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다. 엘조는 마치 밝은 새들이 모여든 거대한 구름처럼 하늘로 솟아올랐다. 하늘을 향해 솟구쳐 오르는 그들의 엄청난 수는 비행하며 지표면에 움직이는 그림자를 드리웠다. 지상에서 인간은 루시파엘과 그녀의 동족의 수많은 자녀들인 엘조를 바라보며 그들이 경이롭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 가지 재앙이 천사와 인간 모두의 마음을 뒤덮으면서, 지상의 천사들에게는 마지막 날들이 도래하고 있었습니다. 운명, 파멸, 그리고 죽음은 그들 각각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지상의 감시자들과 그들의 필멸자인 아내와 남편들 중 다수는 산 깊숙한 곳에 숨어들었고, 그들의 기괴하고 짐승 같은 자손들은 드넓은 하늘과 바다를 지배했습니다. 이에 보좌께서는 천사 라파엘을 보내어 당신의 우려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라파엘은 인간의 영으로 하늘에서 내려와 세속적인 유혹에 굴복하지 않은 소수의 순수한 감시자들과 마주했습니다. 이들은 바로 질서의 미카엘, 분열의 가브리엘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군단이었습니다.

도의 아즈라엘, 영의 사라카엘, 우리엘, 레미엘, 타디엘, 그리고 수많은 신성한 계급의 주요 영들. 그리고 미카엘은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을 라파엘에게 계시했습니다.

미카엘은 라파엘에게 파수꾼들, 곧 하나님의 아들딸들 대부분 이 사람의 아들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땅을 상속받을 수많은 강대한 자녀를 낳았습니다.

미카엘은 타락한 파수꾼들이 하렘 산에서 맺은 계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두다엘 과 우르흐 의 골짜기로 사라지기 전에 , 특히 그들의 수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매우 많았기 때문입니다. 미카엘은 라파엘에게 그들의 이름을 알려주었는데, 그들은 스스로를 십의 우두머리라 불렀습니다 . 그들은 셈야자 의 천사 들, 즉 에스겔, 검의 사마엘 , 빛의 루시파엘 , 문의 케르베로스 와 히드라 , 운명의 아자젤 , 불의 프로 메테우스, 말씀의 헤르메스 , 키스데야, 마체트, 아틀라스, 아라키엘, 그리고 그들 아래에서 섬기는 수많은 지상의 악마들로 이루어진 배신자 군단 이었습니다 .

라파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버리고 땅을 자신들의 것으로 삼은 파수꾼들이 자신들에게 저항하는 수많은 천사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파수꾼들이 인간을 유혹하고 억압하기 위해 저지른 수많은 악행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 셈야자, 사마엘, 아자젤이 인간의 딸들을 제비뽑기로 정해 많은 아내를 얻었고, 루시파엘은 인간의 아들들 중에서 남편감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파엘은 인간 이 십인방 의 우두머리 들이나 그들의 신성모독적인 계약에 충성을 맹세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천사들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유혹하고, 산 아래에 영원히 가두어 버리겠다는 위협으로 그분을 두렵게 했습니다 .

라파엘이 지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목격하고, 배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늘로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땅을 더럽힌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정화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곧바로 보좌의 진노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세상에 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반역한 수많은 파수꾼들이 창조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음을 아셨기에 , 순수하고 남은 천사들의 권능과 지위와 권위를 바꾸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로 굳건히 묶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분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충실한 천사들에게 분열의 검과 질서의 방패를 주셨는데, 전자는 가브리엘에게서, 후자는 미가엘에게서 받았습니다. 또한 아즈라엘의 통과와 사라카엘의 투구를 주셔서 , 당신의 모든 충실한 천사들을 다음과 같이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마치 다음 무리처럼 전쟁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동안, 그분의 존귀한 아들딸들은 구별할 수 없고 흩어지지 않는 군사가 되었습니다. 보좌 앞에 소집된 이 흩어지지 않는 천사 군단들을 주님께서는 혼돈이라 이름 붙이시고 당신의 것과 같은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 그리하여 그들의 대열은 보좌의 질서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등지고 무장한 천사들이 집결하였다.

지상의 형제자매들을 상대로.

아아, 돌에 영원히 새겨진 기록처럼, 시간의 가장 오래된 석판과 서적에 영원히 멈춰버린 사건들처럼, 이로써 무시무시하고도 신성한 대서사가 시작되었고, 천년 전쟁 과 대천사 분열 의 서막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구는 고통받았습니다.

완벽했던 에덴동산은 노예와 죄악, 겸손과 교만, 그리고 하나님과 천사 모두에게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가득 찬 땅 아래 완전히 쓸려 나가고 짓밟혔습니다. 인간이 어둠이 스며드는 세월로 헤아린 시간 동안, 천사들은 찬란하고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에덴동산의 모든 새들은 침묵에 잠겼고, 서로 싸우는 천사들의 견딜 수 없는 비명 소리 아래 짓밟혀 사라졌습니다.

창조의 이 험난한 시기에, 땅의 지각은 발밑에서 부서지고 쓴 잡초와 천사의 파괴의 씨앗 외에는 아무것도 자라거나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고향을 버리고 세상 사방으로 도망쳤습니다. 사막, 바다, 산, 그리고 온갖 척박한 기후를 용감하게 헤쳐나가며, 천사와 조금이라도 닮은 자들을 피해 지구상에서 가장 외지고 미개척된 지역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천 년 동안 지구 끝자락에 숨어 지냈습니다.

주님의 영이 복수의 검으로 땅에 내려오셔서 다시 헤르메스 천사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그분은 두 번째 증인을 부르셨는데, 그는 라파엘도 아니고 하늘이나 땅에 있는 다른 어떤 천사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겸손하고 충실한 서기관을 불러 그분의 영 안에서 행하며 자신에게 계시된 모든 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헤르메스를 통해 한낱 필멸의 인간, 곧 므두셀라의 어린 아들을 부르셨습니다. 므두셀라 지파의 장로들은 이 젊은 서기관을 '영들 가운데서 움직이는 므두셀라의 아들'이라 불렀고, 그분은 그에게 에녹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에녹을 하레멜 산 꼭대기로 인도하셨으니, 그곳은 십인장들이 하나님께 맹세하고 스스로를 사람의 신으로 세운 저주받은 산이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에녹에게 모든 것을 원통에 기록하라고 명하셨다.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후손을 위해 기록했습니다. 하레멜 산꼭대기에서 기록을 남기던 시절, 에녹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목격한 일들로 인해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성령과 말씀에 감동되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기록은 피로 시작되었는데, 바로 파수꾼들의 결정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주님의 영은 에녹을 산꼭대기에서 떠나 복수의 검으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 검 뒤에 집결하여 십인대장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검은 그들을 찾아내어 심판했고, 에녹은 이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순식간에 땅은 마치 울리는 징처럼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창조 역사상 가장 거대한 대결 아래 철저히 상처 입었습니다. 시냇물과 강은 피로 붉게 물들었고, 역병 과 전염병은 불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숲 전체가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고, 산은 무너져 내리고, 계곡은 수천 군단의 썩어가는 잔해로 가득 찼습니다. 천사들과 격돌하는 티탄들의 물결은 파괴의 눈사태와 같았습니다. 온갖 종류의 비명, 휘몰아치는 먼지, 천둥 같은 포효, 타오르는 재, 그리고 끔찍한 울부짖음이 하늘을 가득 채워 하늘조차 귀먹게 하고 숨 막히게 했습니다. 하늘이 숨을 죽이고, 천사들이 자신들 아래에서 요동치고 신음하는 세상을 부끄러움에 외면했을 때, 하나님의 보좌조차도 가장 불경스러운 반란의 위태로운 균형 상태에 놓인 듯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파괴의 결정적인 날, 충분한 수의 천사와 인간, 그리고

짐승들이 멸망하여 저 위의 모든 별의 절반에 달하는 수가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반역한 파수꾼들의 열정을 꺾어 버렸고, 주님의 말씀은 모든 바다 위로 퍼져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이아와 에레보스 천사들에게 땅의 가장 깊은 곳과 그 아래 바닷물을 그 분께 거역한 천사들을 위해 따로 마련하라고 명하셨고, 모든 반역한 천사들이 인간을 두렵게 했던 것과 같은 운명, 곧 산 아래에 영원히 봉인되는 운명을 겪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심판의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여명을 밝히셨고, 지옥이 탄생했습니다.

주님의 검은 그 검은 죽지 않고 반역한 천사들을 저주하고 파멸시켰으며, 그들은 모두 똑같이 저주를 받았다. 이전의 아름다움은 짐승 같은 추함으로 뒤덮여, 그들의 안팎은 하나님의 눈에 가증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땅의 자궁 속으로, 가이아와 에레보스가 마련한 어둠과 상상할 수 없는 공포의 왕국으로 던져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을 추방하신 이 왕국을 타르타로스 땅, 하데스 영역, 망각, 죽음, 파멸, 지옥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이 왕국과 타락한 파수꾼들 위에 큰 봉인을 찍으셨는데, 이는 이 불의하고 신성모독적인 천사들이 보좌 앞에 심판받는 때까지 지속될 것이었습니다. 이 큰 봉인은 주님의 검은 깎아 만든 세 개의 문석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문석들은 마치 정확하면서도 불가사의하게 연결된 세 개의 회전판처럼 움직였는데, 이 세 개의 문석이 합쳐져 지하 세계와 파수꾼들의 거대한 심연을 인간과 천국의 더 높은 영역으로부터 물질적으로 분리했습니다.

사람의 아들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딸들을 비난하는 것처럼
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와 인간과 천사들의 친밀한 관계를 결코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범죄, 곧 십인장군단과 그의 군대와의 음행 때문에

그러한 악행을 고의로 은폐한 죄에 대해 주님께서 머리, 마음, 몸, 눈에 네 가지 영원한 형벌의 인장을 찍으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에는 지식의 형벌을 찍으셨으니, 그리하여 그분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수치심을 느낄 만큼 지혜로워지셨습니다.

그분은 마음에 불안의 그림자를 심으셨기에, 그분의 영혼은 앞에 놓인 모든 유혹 앞에서 몸부림치며 고통받았습니다. 그분의 몸에는 탄생과 죽음의 고통과 짐을 지우셨기에, 그분은 짧은 생애를 살다가 흠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세상의 빛을 심으셨기에, 그분은 하나님의 얼굴과 천사들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부끄러움과 기도로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의 진노가 배신자 파수꾼들을 완전히 삼켜버린 것처럼 인간을 완전히 삼켜버리지 않은 것은 오직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원한다면 똑같은 저주받은 운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약속된 구원의 짧은 생애 동안, 천국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죄 사함으로 얻은 낙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행동과 의도, 그리고 말씀으로 그분은 오직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영원한 삶을 천국, 질서, 그리고 구원의 왕국에서 보내시든지, 아니면 타르타로스, 혼돈, 그리고 저주의 왕국을 택하시든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헤아릴 수 없고 불가사의한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증거로, 그분은 인간과 천사를 완전히 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이전의 진노가 그분의 아들딸들과 인간의 아들딸들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보다 크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분은 비록 마음과 영적으로만이라도 서로 계속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천사들을 기리기 위해 신성한 신전을 계속해서 세웠고, 조연과 제물, 도움을 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그들의 영혼을 불러냈습니다. 추방당한 천사들은 타르타로스과 하데스라는 광대한 지하세계에 갇혀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에게 영원히 원한을 품고 있었지만, 때때로 이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간 앞에 나타나 창조의 수많은 적나라한 진실, 즉 점성술, 불, 금속, 구름, 마법, 돌, 짐승, 강과 바다, 심지어 한때 하늘이 철저히 감추었던 비밀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감시자 중 한 명은 잃어버린 아름다움과 과거의 방탕하고 퇴폐적인 자유에 대한 원한에 사로잡혀, 깊은 어둠과 절대적인 고립의 시대를 견뎌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추악함을 타르타로스의 가장 깊은 곳에 숨기고, 뒤틀린 땅이 검고 기괴한 형태로 뻗어오르는 황량한 지역, 물이 진흙탕과 숨쉬는 진흙으로 끓어오르는 곳에 스스로를 묻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유배의 세월 동안, 하데스의 가장 예리한 천사들조차 한때 악명 높았던 헤이렐과 모닝스타라는 이름을 잊었습니다. 루시퍼엘이 선택한 자 안에서

고립된 쇠락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인간의 배신에 대한 분노는 더욱 커져갔다. 그토록 끓어오르는 원망의 수렁 아래에서, 그녀의 끊임없는 침울함은 인간의 본질을 타락시켜 결국 인간이 신과 천국을 버리고 자신과 같은 저주받은 운명을 맞이 하게 하려는 꺼지지 않는 집착으로 변모했다. 영원한 감금의 어둠 속에서 그녀는 악마로 변모했고, 타락한 빛의 천사는 음탕하고 탐욕스러운 인큐버스 여왕이 되었다. 인간의 신성한 꿈속을 훑쳐 다니며 그들의 영혼을 잡아먹는, 관능적이고 끊임없이 배회하는 악령이 된 것이다.

대홍수 이후, 천사들의 육신과 육체는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인간의 후손만이 살아남아 짐승과 새, 그리고 들판을 돌보는 유일한 필멸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계절은 마치 쉴 새 없이 움직이는 파리처럼 휘몰아쳤고, 산과 계곡은 솟아오르고 무너졌으며, 강물은 끊임없이 출렁이는 세상 속에서 수 세기를 넘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고요한 아침, 인간은 정원을 갈던 중 아시아 한복판에서 땅속에 묻힌 인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무겁게 새겨진 형상이 신성한 것이라고 여긴 인간은 시간의 껍질을 걷어내고 그것을 모셔 신전을 세웠습니다. 반세기 이상 동안 인간은 그 새겨진 유물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마치 황금 송아지처럼 공개적으로 숭배하는가 하면, 도둑이 훔친 물건을 지키듯 은밀히 경계했습니다. 그분은 그 일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인간이 문을 열 만큼 현명해지면서도 동시에 그런 처형을 감행할 만큼 어리석어졌던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프랑스 랭스 ~ 블라시 성 ~ 1348년 4월

“너는 소년이 아니야. 이제 청년이지. 그 장난감 가지고 놀지 말고 고개를 들어!” 블라시는 마침내 소년의 바쁜 손가락에서 작은 흰 말 인형을 빼앗아 자신의 옷 주머니에 넣고는 소년을 높은 나무 문 쪽으로 몰아갔다. "자, 문을 열어 봐. 그녀는 널 해치지 않을 거야."

"그건 나올 거죠?" 소년이 초조하게 물었다.

"그녀는 올 거야. 다만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될 뿐이지. 자, 이제 네 자신을 돌봐라." 블라시는 지팡이로 소년의 엉덩이를 톡톡 두드리며 앞으로 나아가라고 재촉했다.

“하지만 저는 할 수 없어요.” 소년은 신음하며 지팡이가 닿지 않는 곳으로 겨우 비켜섰다.

블라시는 툭툭거렸다. "그래서, 왜 안 오는 거야?"

"그것은 문 밖으로 날아갈 거예요, 프랑수아 삼촌! 저는 알아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블라시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지팡이를 앞으로 휘둘러 땅을 찌른 다음, 손으로 땅을 감쌌다.

그는 두 손을 금박을 입힌 손잡이 위에 얹고 몸을 앞으로 기울여 꼼지락거리는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부드러운 바람이 마구간을 스쳐 지나가며 블라시의 험렁한 셔츠를 살랑거렸다.

마치 말아 올리는 커튼 같았다. 그의 헐렁한 바지는 엉덩이 아래로 축 늘어져 있었고 무릎에서 짧게 잘려 있었다. 그의 허벅지를 tightly 감싸고 발까지 나선형으로 내려온 미라 같은 붕대가 드러났다. 붕대에는 여기저기 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다.

완고한 상처에서 진물이 흘러나왔다. 블라시는 시선을 가늘게 뜨고 또렷하게 말했다. "바로 지금, 네 기분이 어떨지 말해 줘, 마이클."

소년은 시선을 떨구고 뒷걸음질 쳤다. "무서웠어요." 라고 그는 고백했다.

"그녀의 감정을 어떻게 짐작하셨나요?"

"아마 화가 났을 거예요." 소년이 말했다. "그녀는 심술궂어요, 세상에서 제일 심술궂은 사람이예요!"

"헛소리야." 추기경이 쏘아붙였다. "그녀는 그저 못된 척할 뿐이야. 사실은 갇혀서 두려워하는 거지. 무서운 척하는 것만이 그녀가 두려움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야."

소년은 고개를 번쩍 들고 눈썹을 치켜올렸으며 눈에는 새로운 빛이 반짝였다. "무서워요? 아니면 나?"

"물론이죠! 하지만 당신이 그녀를 두려워하는 만큼 그녀도 당신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가 그녀에게 올라탈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 소년은 몸을 돌려 낡고 움푹 패인 마구간 문을 살펴보고, 풀려나기를 기다리는 조용하고 인내심 있는 힘에 대해 생각했다. 블라시는 말을 이었다. "네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그녀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만 그녀도 너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블라시는 지팡이로 소년을 가리켰다. "마이클, 네가 먼저 나서야 한다."

그녀를 이끌어 당신의 일부처럼, 마치 말이 기수와 떨어 수 없는 존재처럼 느끼게 해 주세요. 그래야만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알게 될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마이클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불평했다. "하지만 만약 그 동물이 무서워서 나를 밟으면 어떡해?"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블라시가 으르렁거렸다. "가자!" 그는 절뚝거리며 마구간 쪽으로 걸어갔다.

소년은 꼼짝 않고 서서 "하지만 프랑수아 삼촌은요!" 라고 항의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잖아! 자, 가자!" 소년은 블라시가 설교하는 동안 뻔뻔한 표정으로 순순히 따랐다.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한때 당신은 바람처럼 말을 타고 싶어 하셨죠? 이 말은 특별한 말입니다. 강인한 정신을 지닌 말이죠. 당신은 아버지처럼, 기사처럼 이 말을 타고 영국군과 맞서 싸우고 싶어 하시는군요?

"하지만 저 말은 안 돼! 엄마가 저 말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뭔가 이상하다고 하셨어."

사납고 사악한 눈빛.

블라시는 발뒤꿈치를 돌려 섰다. "악하다고? 마이클, 네 어머니는 그런 게 아니야. 그저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듯 그런 일에 지나치게 예민할 뿐이지. 가자." 그는 마구간 뒤쪽으로 걸어가 흙바닥에 널찍하게 쌓인 짚더미에 다다랐다. 소년은 머뭇거리며 그를 따라갔다. "게다가, 어머니의 마음을 다스리면 고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문제는 없어. 네가 지금처럼 어머니의 통제되지 않는 불안감을 다스릴 수만 있다면, 어머니는 너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먼저 두 사람이 서로 친해져야지." 블라시는 마지막 마구간 앞에서 멈춰 서서 지팡이로 바닥을 툭툭 두드렸다.

해진 마구간 문고리에 기대어 말했다. "자, 이제 문을 열고 훌륭한 기사가 훌륭한 말을 이끌듯 그녀를 데리고 나가시오."

마이클은 살금살금 앞으로 나아가 빗장을 풀고는 서둘러 삼촌 옆으로 물러났다. 문이 삐걱거리며 문이 열리더니 서서히 넓어지면서 머리를 높이 들고 귀를 쫓긋 세운 거대한 검은 암말의 모습이 드러났다. 눈은 소년의 눈처럼 하얗게 빛났다. 그 짐승은 마구간 안에서 빙빙 돌며 숨을 헐떡이고 발을 구르더니 발굽으로 먼지를 긁어내고는 앞으로 돌진했다.

"안 돼!" 블라시는 지팡이를 높이 휘두르며 말의 탈출을 막았다. "가만히! 진정해!" 암말은 불안하게 고개를 흔들며 마구간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다.

추기경은 미소를 지었고, 그의 엄격한 눈은 마치 말의 눈을 응시하는 듯했다.

노인의 시선에 흘린 듯했다. "그래, 그렇게 될 거야." 노인은 지팡이를 내리며 속삭였다. 갑자기 그의 목소리 톤은 어린아이 같으면서도 섬뜩했다.

"알겠지? 먼저 네가 그녀의 주인이라는 걸 알려줘야지." 그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떠올랐다.

"정말 특별한 말로군. 바람과 같으니." 잠시 후 사제는 목을 가다듬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자, 마이클, 자네에게 부탁할 게 있는데" 그는 말에서 시선을 떼고 마이클이 꽤 떨어진 마구간 기둥을 껴안고 그 너머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블라시는 뒤돌아섰다.

"마이클! 당장 내 곁으로 돌아와! 저 말은 으윽!" 블라시는 발이 땅에서 떨어져 쪼뼀미 속으로 곤두박질쳤다. 말이 그의 옆을 쏘살같이 지나쳐 가자, 그 말은 마구간을 박차고 나와 시골길을 질주했다. 블라시는 신음하며 꿈쩍 않고 누워 있었고, 험령한 셔츠는 이제 그의 머리를 덮고 있었다.

마이클이 간신히 "프랑수아 삼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촌이 문을 열면 항상 그래요!" 라고 말하자, 그는 날카로운 웃음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

"그만해, 마이클!" 놀랐지만 다치지 않는 블라시는 벌떡 일어나 셔츠를 머리 위로 벗어 던졌다. 그는 마이클을 꾸짖으며 몸을 바로 세우고 입에서 짚을 뱉어냈다.

머리카락을 보며 말했다. "네가 도망치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내 지팡이는 어디 있지?"

소년은 킁킁거리며 그에게 달려갔다. 그는 쪼뼀미에서 지팡이를 집어 들었다.

블라시에게 건네주었다. 그는 마구간 기둥을 가리키며 어린아이 같은 논리를 펼쳤다.

"프랑수아 삼촌, 나무 뒤에 숨었어야죠."

"아니, 마이클. 내가 자네를 쳐다보느라 그녀에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더라면—" 블라시는 지팡이를 옆에 기대고 일어서려다 신음 소리를 내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러다 다시 한숨을 쉬고는 쪼뼀미에 털썩 주저앉았다. "가서 어머니를 모셔오렴, 아들이."

대신 소년은 킁킁 웃으며 블라시 옆의 건초더미 속으로 뛰어 들었다. "그녀가 왜 항상 화가 나 있는지 알아요." 블라시는 입술을 꼭 다물고 마구간 지붕만 응시했다. 소년은 마치 어슬렁거리는 호랑이처럼 건초더미를 기어 블라시의 귀에 가까이 다가가더니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비밀을 속삭였다. "그녀 안에 악마가 깃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블라시는 마이클을 노려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더 이상 말하지 마!"

소년은 고개를 가우뚱하며 물었다. "왜요?"

"악마는 인간 에게만 해를 끼치고 동물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

마이클은 굴러가서 건초더미에 구멍을 파내어 흙바닥을 드러냈다.

안정된 상태였다. 그는 얼굴을 굴 안으로 집어넣고 블라시에게 물었다. 굴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mu led하게 들렸다. "내가 동물이라면 악마는 나를 해칠 수 없는 건가요?"

"너는 동물이 아니야. 너는 소년일 뿐이야. 악마는 소년들에게 자신들이 동물일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지."

마이클은 구멍 속으로 손을 더 깊숙이 넣어 흙을 긁어내더니 한 움큼 흙먼지를 움켜쥐었다. 그는 흙먼지를 어깨 너머로 던지고 손바닥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 낸 후 손가락 냄새를 맡았다. "악마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프랑수아 삼촌." 소년은 자신이 만든 구멍 안을 가리켰다. "저기 아래에 있어요. 어디인지는 말할 수 없어요."

"그 말은 절대 하지 마." 블라시는 짚더미 속으로 더 깊숙이 파묻히며 두 손을 머리 뒤로 깎지 끼고 천장을 계속 응시했다.

그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악행을 벌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쁜 행동을 하면 벌을 받듯이, 악마도 사람들에게 악을 퍼뜨렸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입니다."

소년은 블라시의 다소 단순한 비유를 잠시 생각해 본 후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프랑수아 삼촌, 만약 파- 페스티넨세가 악하다면, 악마는 어떻게 나와서 그걸 만들었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블라시는 껄껄 웃었다. "그건 역병이라고 하는 거야, 마이클. 악마조차도 건드릴 수 없어." 감금에서 풀려나도록 해라.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그것을 해낸 걸까요?"

"네가 좀 더 커서 그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알게 되면 그때 얘기하자."

소년은 그의 옆으로 다가와 꼼지락거렸다. "하지만 저는 더 나이가 많잖아요, 프랑수아 삼촌!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블라시는 몸을 일으켜 소년의 팔을 토닥였다. "지금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렇지?"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마를 미워해요!" 마이클이 말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고 악마는 악한 일을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선하시고 악마는 악하다는 것을 알아요. 보세요, 저는 이제 훨씬 더 커졌잖아요!"

"그래, 넌 정말 많이 자랐구나. 선은 신 이고 악은 악마 란다. 그러니 선한 일만 하렴." 블라시는 마이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네 아버지가 널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소년은 무릎을 꿇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 건초더미에서 긴 짚 한 가닥을 뽑아 손가락으로 빙글빙글 돌렸다. "프랑수아 삼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추기경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이미 기도하는 법을 알고 있구나."

"아니요, 제 말은, 당신이 기도할 때,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다른 단어들을 사용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방식 말이에요.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블라시는 마이클이 라틴어 기도문을 순진하게 언급하자 웃었다. "글쎄, 나도 할 수 있지. 기사도 되고 사제도 되고 싶나?"

"만약 제가 다른 말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악마를 죽이실 거예요." 블라시는 말을 이어가며 점점 커지는 아이의 눈에서 희미한 빛을 보았다. "아니면, 너는 이미 그 말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악마를 죽여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잖아!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볼 수 있겠니?"

블라시는 고개를 저으며 턱을 굳혔다. "기도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야, 마이클. 아마 네가 좀 더 나이가 들면—"

소년은 짚을 던져버리고 손가락을 쭈셨다. 블라시는 다리로 시선을 돌려 봉대에 묻은 핏자국을 손으로 두드렸다. 그때 소년이 셔츠 소매를 잡아당기는 것이 느껴졌다.

"프랑수아 삼촌?"

"예?"

"하나님은 왜 악마가 내 아버지와 자크 삼촌,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죽이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그건 전쟁이었어, 마이클.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었지. 하지만 원한다면 비밀 하나 알려줄 수 있어." 그가 말했다.

"말해봐! 그게 뭐야?"

블라시는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나는 네 아버지와 자크 삼촌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때 다른 말들도 썼단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니?"

"무엇?"

"그는 내게 그들이 지금 천국에 있다고 말했어. 당신의 아버지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계실 거예요. 당신이 소중한 순간을 맞이하여 그분 곁으로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그렇다는 거야?"

블라시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 그럼."

마이클은 콧방귀를 끼며 몸을 뒤로 젖혔다. "하지만 난 죽고 싶지 않아. 묻히면 벌레들 사이로 묻히고 뼈만 떨어져 나가잖아. 예전에 묻어둔 새를 파냈는데 깃털도 살점도 없이 뼈만 남았더라."

추기경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땅속에 묻히지 않을 겁니다, 미카엘. 우리의 육신은 묻히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완전히 죽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영혼 또한 불멸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는 육체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프랑수아 삼촌, 영혼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영혼이 진짜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볼 필요가 없어, 마이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셔."

그분과 함께 있으십시오.

소년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말을 멈췄다. "제가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나머지 말씀도 가르쳐 주시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은 필요 없어요."

소년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분은 저에게 절대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저는 항상 잠이 들어요."

블라시는 씩 웃으며 소년의 가슴을 톡톡 두드렸다. "그분은 네 마음속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속에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

마이클은 가슴에 손을 얹어 심장 박동을 느껴보았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마구간 지붕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손을 내리고 건초더미의 구멍을 훑듯 본 후 블라시에게 다시 돌아섰다. "프랑수아 삼촌, 우리가 천국에 있으면 악마가 우리를 해칠 수 있어요?"

블라시는 껄껄 웃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그럼 저는 천국에 가서 아버지와 자크 삼촌을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래도 될까요?"

블라시는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천국에 가고 싶니?"

소년은 활짝 웃으며 두 팔을 쭉 뻗은 채 짚더미를 움켜쥐고 벌떡 일어섰다. "난 천사가 될 거야! 날개를 달고 엄청 빨리 날 수 있어서 악마가 날 잡을 수 없을 거야!" 그는 짚 더미에서 벗어나 마구간 기둥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나는 흥내를 냈다.

그는 뒤로 짚을 뿌리며 말했다. "이렇게요, 프랑수아 삼촌! 제가 얼마나 빠른지 보세요?"

그는 빙글빙글 돌며 달렸고, 어지러움을 느꼈다. 잠시 후, 마이클은 비틀거리다 땅에 쓰러졌다. 슬취한 듯한 눈빛과 씩 웃는 얼굴로 그는 물었다. "내가 엄청 빨리 날았지? 바람처럼?"

"정말 그랬어, 마이클." 블라시가 그를 안심시켰다. "바람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빨랐지. 자, 이제 네 어머니를 모셔오렴."

대신 소년은 시선을 마구간 바닥으로 돌리고 먼지를 한 무더기로 모았다. 그는 흙더미를 멍하니 바라보더니 미소가 사라졌다. 그러더니 어색하게 일어서서 블라시에게 물었다. "하나님은 영국인들이 천국에 가는 것을 허락하실까요?" 블라시는 적절한 단어를 찾으려고 흙더미를 더듬었고, 마이클은 말을 이었다. "왜냐하면, 영국인들이 천국에 간다면, 저도 갈 거니까요."

"그들을 쫓아내야 해요. 그들이 우리 아빠랑 자크 삼촌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랑 같이 있을 자격이 없어요." 소년은 마구간 바닥에 쌓인 먼지를 발로 찼다. 블라시는 소년의 말에서 자신의 괴로운 마음속에서 자주 들던 것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분노를 읽어냈다. 소년은 먼지가 마지막으로 있던 자리를 쿵쿵 밟았다. "그리고 악마가..."

그들을 벌레처럼 밟아 버릴 것이다. 뼈가 떨어져 나갈 때까지!

"마이클! 그만해!" 블라시는 쏘아붙였다. "하느님은 그런 말을 듣지 않으실 거야!" 아이는 마치 갑자기 블라시의 행방을 알아챈 듯 그를 바라보았다. 블라시는 마이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추기경은 한숨을 쉬며 턱을 떨구고 가슴속 악의적인 증오심을 곱씹었다. 블라시는 아이를 불렀다. "이리와." 아이는 블라시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으며, 어떤 말도, 기도도,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조용하고도 깊은 고통을 나누었다.

약속은 적절하게 표현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블라시는 소년을 위로하려 애쓰며 말했다. "너에게는 아직 어머니와 내가 있단다. 너는 블라시 가문의 이름을 이어가고, 너처럼 훌륭한 아이들을 많이 낳아 어머니를 위로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네가 그토록 배우고 싶어 한다면, 다른 단어들도 가르쳐 줄게."

"사랑해요, 프랑수아 삼촌." 마이클은 블라시의 목에 얼굴을 묻고 중얼거렸다.

"나도 너에게 그러하듯이 말아야." 블라시는 마이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너는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아들이야." "가지고 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소년을 부드럽게 밀어내고 작은 도자기 말 인형을 그의 손에 쥐여주었다. "자, 착한 아이처럼 어머니를 모셔오렴. 날이 저물었구나."

소년은 훌쩍거리며 몸을 바로 세우고 미소를 지었다. "네, 프랑수아 삼촌." 그러고는 마이클은 소매로 코를 닦고 마구간에서 뛰쳐나갔다. 블라시는 짚더미에 털썩 주저앉아 얼굴을 문지르며 신음했다.

추기경은 마구간 입구 쪽을 바라보며 가볍고 급하게 다가오는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때 마른 중년 여성이 안으로 뛰어들어오자 그는 허리를 꼴꼴이 세웠다. 그녀는 르네 드 블라시의 미망인인 알세 드 블라시였다.

"프랑수아!" 그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마구간을 둘러보며 소리쳤다.

"여기요." 블라시는 투덜거리며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뛰쳐나갔다. "갑소사, 여기가 뭐예요? 다치셨어요?"

"타락했을 뿐입니다." 블라시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그리고 부디 저에게 존엄을 부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 있는 자세—"

그녀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불평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겠어요! 돌아다니면 안 돼요. 붕대 조심하세요! 더럽고 상처에서 피가 다시 나잖아요. 전보다 더 심해졌어요." 블라시는 그저 미소를 짓고 지팡이에 몸을 의지했다. 그는 알사이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지만, 특히 화가 났을 때 더욱 예쁘다고 여겼다.

"너 지금 좀 쉬어야지! 왜 여기 있는 거야?" 알새가 그에게 물었다. "마이클도 여기 있었어?"

블라시는 열려 있는 마구간 문을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또 탈출했군."

알세는 문이 살짝 열린 빈 마구간을 바라보며 역겨운 듯 고개를 저었다. "저 여자가 영원히 사라진 게 우리에게 더 나은 거야. 결국 당신을 짓밟았다고 들었는데. 뻔뻔스럽게 말해 봐. 왜 저 여자를 여기 두는 거야? 마이클 때문이라고 하면 절대 안 돼!" 그녀는 손가락으로 마구간을 가리켰다. "마이클이 저런 것, 저런 것에 가까이 가는 건 싫어! 저런 건 정말 끔찍해."

"사실, 그 말이 훨씬 더 훌륭합니다." 블라시는 그 말을 옹호하며 말했다.

"오?"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럼 대장장이는 왜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고 싶어 했을까요? 그는 평생 말을 바뀐 사람인데 말이죠. 이 짐승들을 그토록 잘 알고, 그토록 노련한 사람이 왜 자기 손해를 감수하려 했을까요?"

블라시는 한숨을 쉬었다. "알사이, 내가 말했듯이 그 말은 엉덩이에 문제가 있었어. 수레를 오래 끌 수도 없었지. 아마 대장장이가 다른 말을 사려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 후한 값을 치르고 사려는 사람이 말이었을 수도 있고. 추측은 끝이 없지."

알세는 비꼬는 듯한 웃음을 터뜨렸다. "추측이라고?" 그녀는 다시 한번 킁킁 웃더니, 곧 평정을 되찾고 허리에 손을 얹은 채 등을 돌려 석양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오늘 빵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비뇽 출신의 꽤 유명한 성직자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습니다. 그는 태도가 바르고 친절하기 까지 했으며 교황궁 내부 사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블라시는 지팡이를 곳곳이 세웠다. 그는 턱을 짚 다물고 마구간을 둘러보았다.

"그는 당신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그녀가 완전히 돌아서기도 전에 블라시는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저 성직자는 누구고, 당신은 그에게 뭐라고 말했어?"

"아파요! 손 치워요!" 알세는 팔을 빼내고 블라우스를 바로잡았다.

"용서해 주십시오." 블라시가 대답했다. "저는 그저 "

알세는 콧방귀를 끼고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팔짱을 끼고는 어스름이 짙어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오늘따라 유난히 밝은 빛이 땅을 뒤덮고 있었는데, 마치 하늘이 서둘러 동이 트는 듯했다.

"우린 겨우 몇 마디 나눴을 뿐이야."

그녀는 인정하면서도 몸을 돌려 그를 훑어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붕대로 감긴 그의 다리에 멈췄다. "하지만 제가 궁궐 부엌 화재에 대해 그에게 물어봤는데, 당신이 묘사한 그런 일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그의 눈을 살폈다.

블라시는 입술을 꼭 다물고 눈을 굴렸다. "내가 화상을 입은 기억이 없다고 말하면 내 상처가 사라지는 건가? 정말이지, 알사이, 누군가의 의심이나 확신이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유죄라는 뜻은 아니잖아."

"추기경님이시잖아요." 알사이는 차갑게 말했다. "하느님 보시기에 그런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더 잘 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블라시는 그녀를 매섭게 쳐다보며 말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제가 회복될 때까지 제 행방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알세는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리고 당신이 물어본 대로, 저는 아직 해보지 않았습니다."

"훌륭하군." 블라시는 건조하게 말했다. "이제 여기서 작별 인사를 할까?" 그는 절뚝거리며 그쪽으로 걸어갔다. 안정적인 입구였지만, 알세에는 불과 몇 걸음 만에 그의 팔을 잡고 멈춰 세웠다.

"프랑수아,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

"그게 뭐예요?"

"당신은 신의 사람이자 추기경이며, 제 아들의 유일한 생존 삼촌이기도 하니, 당연히 제게 진실을 말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블라시는 한숨을 쉬며 지팡이에 몸을 기대고 그녀의 신발에 닳은 부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무슨 일이야?"

"그 다른 말은 어디서 구했다고 하셨죠?" 그녀는 날카로운 어조로 물었다.

"제가 말씀드렸듯 이, 궁궐 마구간에서부터요. 우리가 지상에서 의 삶 동안에도 똑같은 질문을 곱씹어야만 하는 겁니까?"

알세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래야만 해." 그녀는 시선을 돌린 후 손을 꼭 잡았다. 그녀는 손을 모으고 어깨를 펴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며칠 전에 대장장이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는 저를 비웃었어요. 말의 엉덩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고, 또 '그 말은 흔한 말이 아니었어'라고 말했죠."

그것은 누가 봐도 국왕 근위대의 표식이었어. 프랑수아, 자네에게 묻겠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황실 근위대라고요?" 블라시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제가 교황 마구간에서 말을 구해왔습니다." "그건 교황청 소유였어요." 그때 블라시와 알사이의 눈이 마주쳤고, 마치 서로를 꿰뚫어 보려는 듯 강렬한 시선이 오갔다. 알사이가 먼저 시선을 돌렸다.

"대장장이가 착각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그는 말이 제자리에서 후퇴하고, 돌격하고, 측면 공격을 하고, 마치 죽은 것처럼 옆으로 쓰러져 가만히 있도록 명령했다고 말했잖아요. 전투 훈련을 받지 않은 말이 어떻게 그런 명령에 복종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교황청의 말이 어떻게 그렇게 노련할 수 있겠어요?"

블라시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이 말이 원래 전투용 혈통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겠군. 그러면 교황청에 넘어오겠지. 우리는 이 문제를 영원히 고민해도 답을 찾지 못할지도 몰라."

"그렇지도 모르죠." 알세는 전혀 납득하지 못한 듯 대답했다.

마구간을 나서면서 알세는 멀리 숲이 우거진 곳을 내려다보았다. "좋아요. 날이 밝으면 당신의 말을 찾아볼게요. 멀리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녀는 블라시의 다른 팔을 감싸 안고 집 쪽으로 부축했다.

"좋은 말이군." 블라시가 말했다. "시간을 좀 주면 적응할 거야."

"식욕이 돌아왔어?" 알세는 이제 그 주제에 싫증이 난 듯 물었다.

"배가 너무 고파요." 블라시가 인정했다.

"바로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군요. 당신의 접시는 가득 차고 잔은 넘치도록 채워드리겠습니다. 갓 구운 빵도 있어요. 저녁 식사 후에는 편히 쉬세요. 붓대도 갈아드리고 다시 훌륭한 추기경으로 만들어 드려야죠." 그녀는 그의 손을 토닥이며 깔깔 웃었다. "어쩌면 당신이 교황이 될지도 모르죠. 그럼 미카엘은 당신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그녀는 웃으며 물었다. "삼촌 성하라고 불러야 할까요?" 블라시는 힘없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천천히 성을 향해 걸어갔고, 이어진 정적 속에서 멀리서 끊임없이 울부짖는 개의 소리가 들렸다. 그들 너머로는 황혼이 시골 풍경을 뒤덮었고, 그 사이로

얇고 넓게 펼쳐진 구름 사이로 가장 밝은 별들만이 모습을 드러냈다. 나머지는 하늘을 뒤덮은 회색 얼룩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울부짖는 소리는 계속되었고, 섬뜩한 울음소리와 불길한 신음 소리는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음을, 어쩌면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무언가가 바람에 날리는 날개처럼 꾸준히 지평선 너머로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했다.

~*~

블라시가 랭스 마을에 은둔해 있는 동안에도, 외딴 가르디앙 수도원은 마치 수수께끼 같은 학살이 벌어졌던 버려진 전쟁터처럼 보였다. 그곳은 병사, 수도사, 기사, 그리고 말들의 토막 나고 뒤섞인 유해로 가득 차 있었다. 블라시가 두 번째 문석을 열었던 그 끔찍한 밤 이후,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갈기갈기 찢기고 내던져졌으며, 그들의 부서진 조각상들은 수도원 교회의 날아다니는 조각상들이 마지막으로 그들을 떨어뜨렸던 자리에 흩어져 있었다. 흩어진 유해들은 그 자리에 너무나도 철저히 놓여 있었다.

바람은 오래전에 악취를 잃고, 하얗게 바랜 뼈와 해진 옷, 뺏겨서 뺏은 머리카락 사이로 휘파람 소리만 날 뿐, 온갖 비바람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수도원 언덕은 이제 뒤집힌 듯한, 꼭대기가 드러난 무덤이 되어 인류 전체에게 끔찍한 모욕으로 남았다.

본 선장이 쌓아 올린 진 흙더미는 성당 외벽의 균열에서 오래전에 녹아내려, 그가 가두려 했던 부식성 괴물이 충분히 환기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교회 안, 제단 아래에서는 6톤짜리 덮개돌이 죽음의 연기를 뿜어내며 회전하는 기둥의 신음과 울부짖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 그 안개는 매일 밤 반복되는 안개였는데, 마치 예측 가능하고 신비로운 밤의 안개처럼 행동했다.

그것은 저녁 안개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유기체 같았다. 해질녘, 그것은 성당에서 슬며시 빠져나와 언덕 위로 펼쳐지며 물과 돌 표면의 모든 빛과 반짝임을 삼켜버릴 만큼 짙은 검은색의 어둠의 양탄자를 만들었다. 그 안개는 새벽빛이 비칠 때까지 땅 위를 뜨겁게 뒤덮었고,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불에 탄 땅만 남겼다. 언제나처럼, 그 죽음의 장막은 수도원 언덕 위로 걸쳐 올라갔다.

그리고는 성당 안으로 들어가 어둠이 서서히 깔리기를 기다렸다. 안개는 밤이 되어가는 모습 외에는 거의 알아볼 수 없었지만, 마치 끈질긴 역병처럼 매일 저녁이 지날 때마다 점점 더 넓은 지역을 뒤덮으며 프랑스 시골을 서서히 질식시켰다. 안개가 지나간 자리에는 잡초와 관목이 갈색으로 변하고 나무들은 잎을 모두 잃고 쓰러졌으며, 연못과 시냇물은 썩어 문드러졌고, 사람 부터 개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가 죽어갔다.

쥐부터 벼룩까지, 끊임없이 달라붙는 존재에게 배를 내어주었다. 타오르는 증기는 마치 악마의 방어선처럼, 끝없이 확장되는 해자를 만들어내는 듯했다.

열린 문석을 지키기 위한 죽음.

하지만 길을 잃은 여행자에게는 안개 이상의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도원이 문을 닫았을 때,

서쪽 지평선이 마지막 햇살을 가렸고, 성당의 날카로운 그림자가 숲 바닥 위로 휘감겼다. 성당 지붕 꼭대기에서는 까마귀 떼의 불협화음처럼 하늘로 폭발하는 혼돈의 클라이맥스가 펼쳐졌다. 화강암 조각상들이 소용돌이치며 별들을 향해 솟구쳐 올랐고, 이 공중의 기괴한 형체가 모여들었다.

날개 달린 악마 무리처럼 시골 곳곳을 휩쓸고 다니는 수많은 떠돌이 무리로 변했다. 그들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발견하는 대로 잡아먹으며 사냥을 계속했다. 마치 치명적인 안개처럼, 그들은 매일 밤 새로운 지역을 뒤덮으며 사람이 사는 마을에 점점 더 가까이 날아들었고, 인근 마을인 무라트, 빅쉬르세르, 생플루르 에 점점 더 큰 위협을 가했다.

이 공중의 생명체들은 진정한 그로테스크가 아니었다. 각각의 생명체가 닮은 그로테스크의 육체는 햇빛에 노출되어 오래전에 죽어버렸기 때문이다. 이 조각상들은 단지 살아있던 그 모습을 본뜬 화강암 덩어리에 불과했고, 그 안에는 원시의 데이먼들이 깃들어 있었다. 열린 문스톤에서 탈출한 영혼들, 즉 엘조의 진정한 본성과는 전혀 다른, 비물질적이고 형체가 없는 데이먼들이었다. 바위 같은 형체들은 악마에게 흘린 돌에 지나지 않았으며, 지옥이 창조된 첫날에 지옥으로 던져진 악마들의 화신이였다. 한때 그 몸을 소유했던 엘조는 오래전에 태양에 의해 고체로 변해버렸다. 이제 오직 데이먼들만이 그 몸을 차지하고 달빛 아래 하나 되어 움직이며 끝없이 넓어지는 그림자의 땅에 공포를 퍼뜨리고 있다.

점점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이 스며드는 부식성 안개와 악명 높은 날아다니는 석상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 끔찍한 괴물들을 피해 도망칠 방법을 찾았지만, 지옥의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계획에서 벗어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역병은 흑해에서 솟아오른 용의 형상이었는데, 세 개의 부풀어 오른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각각 세 가지 이름, 즉 림프절 전분증, 폐렴, 패혈증을 의미했습니다. 세 머리 괴물은 검은 쥐를 타고 다녔으며, 프랑스인들은 이를 흑사병이라고 불렀고, 지옥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것은 진정 악마의 술이었다. 아시아의 66%가 죽음의 악취에 휩싸여 있을 때에도, 인간의 영혼에 대한 루시파엘의 갈망은 아직 절반밖에 채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인간의 모든 영혼을 영원히 가두어 두고 싶어 했다. 그리하여 1347년 10월 말, 커다란 추수감사절 보름달이 뜬 밤, 흑사병은 산타 고데 베르타 호의 밧줄을 타고, 배를 묶는 밧줄을 타고 유럽 전역으로 몰려들었다. 단 며칠 만에 루시파엘이 만든 치명적인 병은 변화한 항구 도시 메시나를 질식시키고 독이 든 바닷바람처럼 내륙으로 불어왔다.

메시나 시를 휩쓴 역병은 남쪽으로 80km(50마일)를 달려 카타니아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주민들은 전염병이 발생했음을 즉시 알아차리고 마을을 봉쇄했지만, 역병이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너무 늦었습니다. 카타니아는 마치 잘 익은 사과처럼 터져 수많은 검은 사과를 쏟아냈습니다.

열에 들뜬 겨드랑이 아래에서. 그리고 카타니아 시는 확산되는 전염병에 휩싸였다.

역병으로 인해 베네치아 도시는 창백해졌고, 하루에 600구의 시체가 쏟아져 나왔다. 베네치아 의사들이 점점 악화되는 환자들을 돌보느라 고생하자, 그들 중 열 명 중 여덟 명이 독이 든 사과가 돌아나 죽었습니다. 사악한 마녀 루시파엘이 범인이었고, 결국 베네치아 인구의 삼분의 일이 죽었고 그들의 시체는 햇볕에 썩어갔습니다.

흑사병, 폐렴, 패혈증이 창궐하는 가운데 루시파엘은 검은 사과 수확을 계속했다. 그녀는 세 갈래 쇠스랑을 휘둘러 세 가지 역병을 더욱 북쪽으로 밀어 넣어 유럽 남중부 해안선을 휩쓸었다. 인근 섬인 사르디니아와

코르시카는 그녀의 사악한 천재성으로 인해 붕괴되었고, 메시나에 입항했다가 출항 명령을 받지 못한 12척의 상선 중 3분의 1은 결국 제노바 항구에 정박했습니다. 메시나에서와 마찬가지로 제노바의 항만 관리들은 배들이 역병을 옮기고 있다는 사실을 갑자기 알아채고 불타는 화살로 배들을 저지한 후 출항을 명령했습니다.

항구를 떠나라는 명령에 따라 병든 선원들은 마르세유와 바르셀로나 항구를 향해 항해를 시작했지만, 그 전에 병든 쥐들을 밧줄을 이용해 제노바 부두에 더 많이 내던졌다. 불과 며칠 만에 도시 전체가 악취 나는 무덤으로 변했다.

해체된 함대의 일부가 마르세유 항에 도착했을 때, 당국은 모든 선박과 화물을 몰수한다는 조건 하에 오염된 배들을 항구에 머물게 했습니다. 감염된 선원들과 쥐들이 도시로 퍼져나갔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악마의 병이 도시를 집어삼켰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비좁은 공간에 갇힌 희생자들에게 벽으로 둘러싸인 건물들은 부패의 도가니가 되었고, 그 안에서 사망자 수는 10명 중 8명에 달했으며, 심지어는 전멸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때 번화했던 항구 도시 마르세유는 적막에 휩싸였습니다. 1만 5천 명의 남녀 노소가 재와 먼지가 되었습니다.

1348년 초, 흑사병 함대의 마지막 남은 잔해가 바르셀로나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마르세유와 마찬가지로 항만 관리들은 배를 압수하고 오염된 선원들을 도시로 들여보냈습니다. 예외 없이 도시의 모든 교회는 흑사병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말이 끄는 수레들이 줄지어 행진하며 시체를 가득 싣고 있었다. 대부분의 마을 관리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이미 사람들은 자신들의 검은 사과에 정신이 팔려 있었고, 시민 질서는 원시적인 혼돈에 굴복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로,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다고 확신한 수백 명의 바르셀로나 시민들이 공동묘지에 모여 죽은 자들의 날을 기념하며 섬뜩한 축제와 술에 취한 난교를 벌였다. 그들은 하나 되어 죄를 짓고, 죽어서, 전염병이 닥치기 전에 죽어 그 끔찍한 재앙을 피한 운 좋은 친척들의 무덤 위에서 썩어갔다. 공동묘지에는 더 이상 매장할 공간이 없었고, 추가적인 성지를 축성해 줄 사제도 없었으며, 감염된 시체를 묻어줄 사람조차 거의 없었기에, 시체를 수습하던 사람들은 수레를 끌고 바다로 향했고, 부풀어 오른 시체들을 수많은 시체들 사이에 버렸다.

이미 해안선에 밀려온 시체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시신 이 바다에 버려졌고, 마을의 저녁 내륙 바람은 너무나 지독해서 밤공기를 잠깐만 맡아도 다른 이유로 아직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조차 극심한 메스꺼움을 느꼈다. 사방으로 공기, 땅, 그리고

바다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역겨운 부패로 뒤덮여 있었다.

흑사병은 이탈리아 항구 도시에서 내륙으로 확산되어 피사, 로마, 나폴리와 같은 주요 도시들을 휩쓸었습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은 성경에 나오는 끔찍한 예언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믿었습니다. 즉, 신이 자신들에게 진노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1년 전에 발생한 강력한 지진이 이번 전염병의 원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 지진은 베네치아에서 나폴리까지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뒤 흔든 엄청난 지진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진 이후 땅에서 독성 증기가 빠져나와 땅 위를 떠다니며 피부에 흡수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땀을 흘리거나 모공이 열리는 힘든 일을 피했고, 어떤 사람들은 치명적인 증기를 막으려고 소변으로 온몸을 덮었습니다. 도시를 떠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 안에 머물며 거리를 가득 메운 수많은 시체들과 접촉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감히 바깥으로 나선 사람들은 머리 전체를 천으로 완전히 감싸고 눈만 얇게 가린 채 나섰습니다. 그들은 꽃다발과 향신료로 얼굴을 감싸 공기를 걸러냈습니다.

씩어가는 살 냄새와 온 지역을 뒤덮은 전염병을 막으려는 헛된 시도였다.

오염된 해안 도시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대규모 내륙 이주가 이어지면서 흑사병은 유럽 깊숙이 확산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전염병이 밀라노에 닥치자 주민들은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고, 가족 전체를 집 안에 가두고 불을 질렀습니다. 시 당국이 즉시 도시를 봉쇄했지만, 밀라노 역시 결국 전염병에 휩싸였습니다.

피렌체 시 당국은 교회 종소리의 단조로움을 잠재우는 조례를 시행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조문객 수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한 장례식에 두 명의 방문객만 허용했고, 이는 묘지에서 일하는 수많은 인부들이 시신을 파낼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감염병이 확산되고 시신이 묘지를 가득 채우자, 도시는 결국 참호 매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무덤 파는 사람들은 흩어져 있는 흙층 사이에 세 구 이상의 시신을 쌓아 올렸다.

아마도 굴착공들은 매장한 시신의 수로 일정을 기록하며 시간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몇몇 작업자들이 도랑에 시신을 덮는 동안, 다른 작업자들은

끝없이 길어지는 참호의 끝자락을 파헤쳤다. 몇 주 동안 죽음의 행렬은 마치 시계처럼 정확하게 계속 되었다. 매 시간마다 열 구, 스무 구의 시신이 실린 수레가 매장 참호로 도착했다. 결국 피렌체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던 길들은 마치 죽음의 구덩이로 통하는 듯 메마른 진흙길로 변해 버렸다.

그 직후 마르세유가 함락되었고, 아를도 마찬가지로였으며, 교황궁과 교황청의 본부가 있는 아비뇽도 차례로 함락되었다. 성벽 안에 4만 8 천 명의 주민이 밀집해 살던 아비뇽은 다른 어떤 도시보다 빠르게 함락되었다.

종말론 설교자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모두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다. 피할 수 없는 악에 대한 왜곡된 믿음 속에서,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거리 모퉁이에 자리를 잡고 그곳을 자신들의 설교단으로 삼아 인류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와 예언을 퍼뜨렸다. 그들은 허둥대는 군중을 불러 모으고 병든 자들을 불러 모아 우렁찬 설교를 들려주었고, 그렇게 그들의 예언은 스스로 실현되었다. 가장 큰 소리로 외치던 자들은 결국 검은 사과를 맺고 침묵하게 되었다.

불과 몇 달 만에 하루에 400명씩 죽어가는 아비뇽은 인구의 절반을 땅바닥에 내맡겼습니다. 마치 거리 모퉁이에서 종말을 외치는 설교자들처럼, 도시 주민 대부분은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들에게 임했다고, 대역병이 바빌론식 생활 방식과 방탕, 죄악에 대한 신의 형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맹세하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절망에 빠진 교황 클레멘트는 성유를 뿌리고 론 강 전체를 성지로 선포했습니다. 이제 거대한 강은 편리하고 신성한 매장지가 되었고, 아비뇽의 묘지 관리인들은 전염병 희생자들을 생베네제 다리 한가운데로 실어 날라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루시파엘의 불경스러운 혼합물은 교황청의 심장부까지 휩쓸어 아홉 명의 추기경과 아비뇽 성당 사제 절반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역병은 그들이 임명한 지상의 교황, 클레멘트 교황의 목숨만은 앗아가지 못했습니다. 교황은 비밀리에 임명한 경호원과 의사들의 보호를 받으며 어둠 속에서 교황궁을 탈출했습니다. 죽어가는 고위 관리들과 병약한 귀족들은 궁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성문 앞에 모여 클레멘트 교황의 사면과 임종성사를 간청했지만, 그들은 클레멘트 교황이 이미 며칠 전에 도시를 떠났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이 클레멘트 교황의 탈출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가 북쪽 도시 발랑스로 이동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사실 클레멘트 교황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는 더욱 멀리 떨어진 외딴 알프스 마을인 그르노블에 은둔하여, 항상 불이 타오르는 두 개의 벽난로 사이에 자리 잡고 기드 솔리악이 이끄는 엄선된 의사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교황청 내 비밀을 지키는 능력 외에도, 그는 뛰어난 의사였습니다.

클레멘트 교황의 주치의이자 총애를 받던 프랑스의 명장 의사 피르무스는 클레멘트 교황과 그의 추기경들을 정기적으로 치료했습니다. 클레멘트 교황은 당장의 필요를 충족한 후, 교황궁에 남아 교황의 명령을 집행하는 피르무스 추기경에게 서면으로 연락하며 원격으로 교황청을 통치했습니다.

1348년 봄은 예년보다 일찍 찾아와 무더운 여름과 함께 수많은 사망자를 불러왔습니다. 파리는 흑사병에 빠르게 휩싸여 하루에 800구가 넘는 시신이 쏟아져 나왔고, 반경 16km에 달하는 지역까지 끊임없는 악취로 가득 찼습니다. 교황 클레멘트처럼 필립 왕도 은신했고, 극소수의 측근에게만 자신의 행방을 알렸습니다. 당시 왕실 근위대 신설 부대를 이끌던 본 대위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기드 솔 리악이 교황궁과 교황청 내에서 높은 신뢰를 받았던 것처럼, 본 대위 역시 필립 왕궁 내에서 큰 신뢰를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파리의 몰락 이후, 프랑스의 주요 도시인 리옹, 보르도, 오를레앙, 랭스 또한 마찬가지로 붕괴되었고, 그와 함께 왕권과 지도력도 무너졌다.

왕의 신하들과 여러 세대에 걸친 귀족들이 공동묘지에 무더기로 묻혔고, 가난한 하인들은 길가에 방치되어 썩어갔다. 골목길도 강도 사체로 가득했고, 온갖 종류의 무인 선박들이 수로를 따라 목적 없이 떠다녔다. 특히 폭우가 내린 후에는 수백 구의 부풀어 오른 시체들이 강과 개울을 따라 떠내려와 서로 뒤엉켜 마치 떠다니는 살덩어리 섬을 이루었다.

마치 죽음의 후광처럼 하얀 거품 고리가 검게 그을린 시체 더미를 둘러싸고 있었고, 이 시체 더미 위에는 다리가 긴 하얀 새들이 날아다니며 풍성한 먹이를 향해 부리를 찌찌거렸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선단이 제공한 곤충들. 죽음은 꾸준히 퍼져나가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보르도 마을 근처,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두구아트 다리의 좁은 기둥들은 마치 시체를 끌어모으는 그물처럼 서 있었다. 다리 기단에는 물에 젖은 사람, 양, 소, 말의 사체가 쌓여 있었다. 감히 다리를 건너려는 여행자들의 눈은 아래에서 끓어오르는 거품 같은 연기에 타들어 갈 듯 아래로 향했다. 다리 근처에 다다른 동물들은 대부분 강을 건너려다 강제로 내몰릴까 봐 두려워했고, 많은 짐승들이 다리 건너편에 이르기도 전에 강둑으로 뛰어내려 발효 중인 오물에 얽매어 거품을 더욱 부추기는 연료가 되었다. 길과 강, 마을과 도시, 왕과 왕국들— 지구는 죽어가고 있었다. 썩어가는 악취 때문에 가장 높은 하늘조차 악취를 풍겼다.

그리고 루시파엘은 그녀가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내내 낄낄거렸다.

[제11장 끝]



이 문학 작품은 창작 되었습니다. d는 오직 ~ 에 헌정하기 위해

에드거 앨런 포 (1809-1849)

— 그의 업적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기를 —



~[고딕노블.org](https://www.gothicnovel.org)~